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6월 11일(주일) 제1151호



스리랑카 홍수피해 현장.

스리랑카에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파견

NGO 더멋진세상, 7일부터 홍수피해 지역 긴급구호
구호물품 전달, 학용품 지원, 우물 청소 및 방역작업

NGO 더멋진세상(이하 더멋진세상)이 극심한 홍수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서 긴급구호를 시작했다. 스리랑카에는 우기가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시간당 300~500mm의 폭우가 쏟아져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208명, 실종 92명, 수해피해자 67만 명이 발생했다. 지난 2003년 5월 홍수

이후 14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피해다.

더멋진세상은 홍수피해가 집중된 스리랑카의 중남부 지역인 엘피티야(Elpitiya)에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1,000여 가구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 일주일 이상 이어진 침수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았다.

가옥이 침수되고 무너져 내려 주민들은 임시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농장도 침수돼 막대한 재정피해를 입었다. 식수원인 우물도 오염됐다.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식량부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가

무너지고 학용품의 분실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멋진세상은 지난 7일부터 긴급구호 인력을 투입했다. 신속한 구호 활동을 위해서 지역 교회와 관공서, 주민들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더멋진세상은 앞으로 2주 동안 홍수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물품 전달하고, 학생들에게는 학用品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염된 우물을 청소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도 실시한다. 긴급구호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조기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더멋진세상 김창욱 사무총장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린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복구를 통해 다음세대들의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긴급구호 계획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덧붙여 “홍수피해 지역은 교회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한데 이번 긴급구호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마리아행전 'SENT 보냄 받은 자'

6월 22~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다음세대 위한 여성들의 기도부흥운동 2017 마리아행전 'SENT 보냄 받은 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전등록 인원이 벌써 2,500명(오전집회 1,800명, 저녁집회 700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직장인 마리아들을 위한 저녁집회가 준비되어 그동안 마리아행전에 참석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가신청을 한 것으

로 보인다. 마리아행전 행사당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참가를 원하는 마리아들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참가신청은 14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원(직장인 마리아를 위한 마리아행전 1만원)이다.

문의: 02-3215-3667, 3201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6월 비전헌금 대학청년부 후원

오늘(11일)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은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올해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2,911명의 청년들이 산 넘고 바다 건너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국내 62개 지역, 87개 팀, 2,135명, 해외 21개국, 53개 팀, 776명이 여름 아웃리치 참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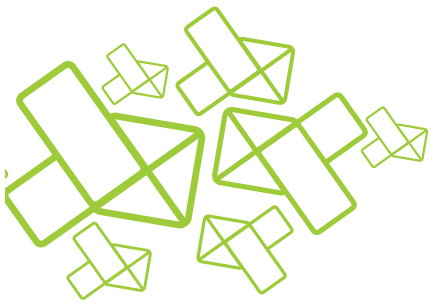
해외 아웃리치 안전은 교육부터

6월 13일 19시 30분 양재 화평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6월 13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해외 아웃리치에서 꼭 지켜야 할 수칙, 질병, 사고예방 방법,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아웃리치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아웃리치 팀장, 부팀장, 총무, 선교 유관

기관, 국제부, 차세대, 대학청년부, JDS 등 각 부서 아웃리치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올해는 아웃리치 금지 국가도 많고,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면서 “안전하고 의미 있는 아웃리치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아웃리치 담당자들은 안전교육에 꼭 참석해 달라”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208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도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하 목사님이 천국으로 주소지를 옮기신지도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8월 2일이 다 가온다고 생각을 하니 성도님들께 안부의 편지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저는 주님의 평안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제가 홀로 사는 사람이 된 후 주님께서 직접 다루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

셔서 이제야 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수록 많은 시간을 덧없이, 멍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하 목사님을 그리워하면서 많이 방황하고, 황당한 일도 여러모로 겪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미국의 서부에 있는 모하비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에 있다고 황량한 모래 폭풍 속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곳 가까이에는 고속도로도 있고, 마켓과 병원도 있답니다. 황야의 판자집이 작지만, 살 수 있도록 조금 손을 보고 깨끗하게 치우고 살고 있으니까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다녀 보니 산속에 호수도 5개나 있고, 산책 할 수 있는 길도 있답니다. 식사도 간단하게, 그러나 정식으로 조물조물 만들어서 오물오물 먹으며 건강을 위하여 노력도 하곤 합니다. 여행 다닐 때마다 열심히 써서 돌아오면 열심히 풀

러 놓던 짐들도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간단히 준비해두곤 합니다. 2박3일짜리, 1주일짜리, 1달짜리 가방을 따로 따로 싸놓고, 빨래만 다시 해서 갈아 두고 간단히 떠나 다니곤 합니다. 집 담장을 따라 오솔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자기 전에 한 시간씩 걷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오디오 복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8월에는 목사님 추모식에 다녀 온 후 언니(이형자 권사)를 따라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디아스포라 대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종교개혁 500주년 행보도 같이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영국에 있는 데니스 레인 선교사님 댁에 가서 준 레인 사모님도 위로 해 드리고, 데니스 레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지내시는지 뵈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그리워하면서도, 교회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훈 담임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CGNTV와 두란노서원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부를 잊고 앞을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목사님 계신 곳에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초야에 묻혀서 이렇게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편지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귀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형기 드림



2017 장로수련회 현장.

“선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2017 장로수련회, 장로, 교역자 254명 참석

2017 장로수련회가 지난 9일과 10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됐다. 온누리교회 장로 230명과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24명이 참석했다.

이번 장로수련회에서는 ‘미션, 성공이 아닌 섬김’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선교를 돌아보고, 앞으로 온누리교회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비전을 공유했다. 해외선교, 이주민선교, 사회선교 현황을 파악하고 분임토의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까지 이어졌다. 말 그대로 선교를 위한, 선교에 의한 수련회였다.

2017 장로수련회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선교(해외, 이주민, 사회선교)현황 발표, 분임토의, 조별 친교 나눔, 중보기도,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영적 우

정’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요나 단과 다윗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했기에 아름다운 영적 우정을 맺을 수 있었다”며 “장로수련회를 통해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영적 우정을 맺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홍범식 장로(두란노해외선교회)는 “온누리교회 초창기 시절 선교사로 헌신해 온갖 고생을 다하신 선배 장로님들의 영상을 보니 정말 그림고 고마웠다”면서 “선배 장로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장로들이 선교에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구병 장로(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는 “장로수련회에서 선교를 깊이 생각하고 나눈 만큼 삶의 현장에서 일등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현주, 이소정 기자

박성심 사모의 임마누엘 회복세미나

6월 16~1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의 은혜와 감동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다. 후속세미나 ‘임마누엘 회복세미나’가 6월 16일과 17일 오전 10시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지난 회복축제에서 임마누엘 일기를 소개했던 박성심 사모가 임마누엘 일기쓰기의 방법과 실제 심화과정을 강의한다.

임마누엘 회복세미나에서는 ‘임마누엘 일

기를 경험하라’, ‘임마누엘 시력’, ‘감사와 임마누엘’, ‘관계회화와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의 생각 맞추기’, ‘임마누엘 공동체’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 교재 <임마누엘 일기(토기장이)>는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문의: 02-3215-3532

은빛날개 세미나 30일 개강

‘은퇴이후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은빛 날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은빛날개 세미나는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인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6월 30일부터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한창인 인생에 찾아온 은퇴의 아픔&외로움, 살아온 나를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 친구와 함께 나를 개발하는 기쁨, 다가올 미래는 지혜사회, 그 주인공은 어르신들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7442-0192

온누리열방탁구대회 막 내려

양재 2000선교 스포츠선교팀이 개최한 ‘제5회 온누리열방탁구대회’는 참가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모두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었다. 서빙고, 양재, 인천, 부천, 평택 온누리교회 공동체, 안산과 화성M센터, 군포 시청소년원 등 하나로, 남대문 쪽방촌 등에서 총 28팀 120명이 참가했다.

군포시청소년원터 하나로에서 참가한 한 학생은 “이번 대회를 참여하고 난 이후에 탁구선수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제5회 온누리열방탁구대회는 서빙고 근린공원에 위치한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동경 기 · 도 · 제 · 목

- 6월 12일(월) 하나님만 영광과 높임 받는 러브소나타가 되도록
- 6월 13일(화)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 6월 14일(수) 일본 청년들이 복음에 감화되어 많은 헌신자가 생겨나도록
- 6월 15일(목) 이재훈, 사도 아키라 목사(가스펠나이트 강사)가 영육 간 강건하도록
- 6월 16일(금) 스테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 6월 17일(토) 참가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도록
- 6월 18일(주일)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이 있도록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신명기 20:1~8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쓰임 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면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이스라엘보다 많은 민족과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들과 전차들과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1절).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영적 기억상실증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현실이 아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면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싸움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 군대에게 연설해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이다’”(2~4절).

제사장들의 사명은 군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내리신 조치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군인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장교들은 군대에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포도원을 만들고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5~8절).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말씀을 후렴구처럼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로 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조치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소수의 두려워하는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된 소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며 용사는 큰 힘에 의하여 구출을 받지 못하는도다”(시 33:16).

많은 군대가 있으면 왕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대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병력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3천 명을 이끌고 갔지만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6백 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삼상 14:6).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요나단 시대에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를 믿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그 싸움과 역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영성과 믿음은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고백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 들어 갔습니다. 그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의 발걸음 이전에는 이스라엘 진영에 두려움이 가득했었는데 요나단과 병기는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 들어 가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적진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라

똑같은 예가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미디안 족속들을 너희에게 붙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만 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삿 7:2-3).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자유롭게 돌아가라고 했더니 3만2천 명 중에서 2만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13면에 계속>**

청년실업과 교회

아프니까 청춘이다?

“요즘 청년들은 어려운 시절을 안 겪어봐서 앓는 소리만 한다.”

이 시대 청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의 말처럼 배는 곱지 않았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오죽하면 켑거루족, 니트족, 장미족이라는 말이 등장했을까. 청년들이 실업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독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꿈꾸지 못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신음하고 울고 있는 청년들에게 누군가 힘이 되어 줘야 한다.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1988년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7%와 5.4%였으나 2015년에는 41.5%와 9.2%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자는 43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8,000명이 늘어났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25~29세 청년실업자가 2015년 대비 17.4%나 증가했다.

취업난의 자화상 '니트족'과 '켑거루족'

대학을 졸업한지 2년째인 A씨(26세)는 취업에 실패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용돈벌이에 그칠 뿐이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경리직을 구하는 것도 하늘에 별 따기다. 매월 4~5만 지원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취업 실패에 의욕마저 잃고 있다. 덩달아 자존감도 낮아졌다. 이제 지원서를 넣어도 합격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기대마저도 사치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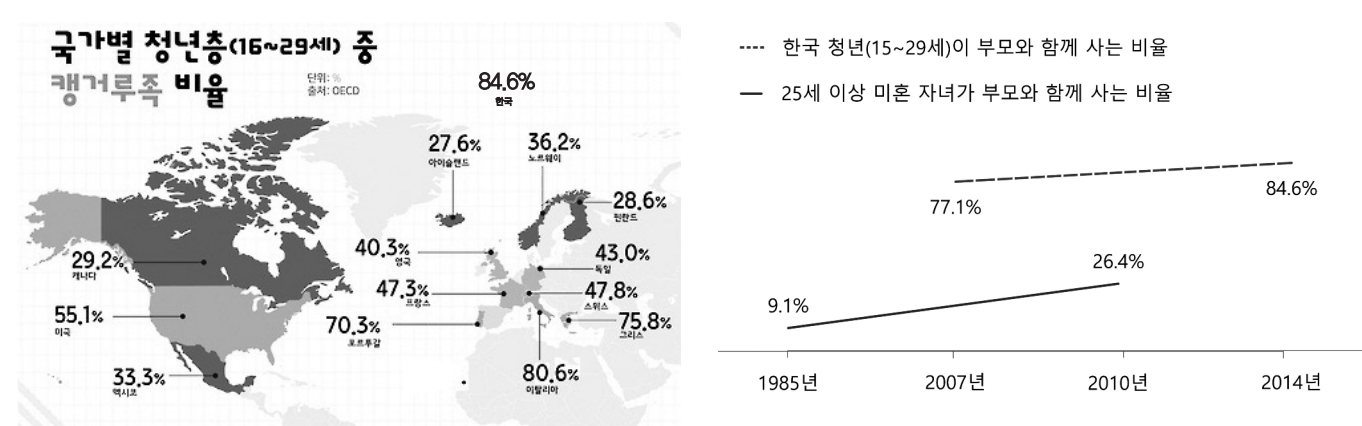
A씨처럼 심각한 취업난을 경험하고 일할 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고 부른다. 일하고 있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무직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니트족이 낳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켑거루족'이다. 자립할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7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취업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무기력증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9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청년 10명 중 9명이 취업의욕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구직 경험자들이 취업무기력증을 느끼는 강도는 아주 극심하다(27%)와 극심하다(49%)가 무려 76%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만 봐도 이 시대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본인 스스로 '니트족'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25%나 됐다. '현재는 아니지만 니트족으로 전향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33%나 됐다. 그 이유는 '취업이 안 돼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니트족이 됐다(29%)'가 가장 많았다.

“나는 이태백, 사촌 오빠는 삼일절”

결론부터 말하면 니트족의 증가가 켑거루족



증가를 초래했다. 솟구치는 생활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근에는 취직과 결혼을 해도 부모와 함께 사는 신(新)켑거루족도 많아지고 있다. 집값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양육을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5세 이상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85년 9.1%에서 2010년 26.4%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15~29세 청년 중에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84.6%(2014년 기준)로 2007년 77.1%에 비해 7.5%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탈리아(80.6%)를 제쳤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이들 중 32%가 소득이 있는데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찰러리맨(child와 salaryman의 합성어)'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점이다.

청년실업 혹은 취업난과 관련된 세태를 웅변하는 신조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0년 대학가에서는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빌린 학자금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회분위기를 풍자한 말이다. 2년째 대학교 졸업을 미루고 있는 B씨(25세)는 졸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에 대한 부담감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백수가 되느니 학생 신분으로 취업준비를 계속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B씨와 같이 대학졸업을 계속 미루는 청년들을 'NG(No Graduation)족'이라고 한다. 학교라는 동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해서 '동지족'이라고도 한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C씨(25세)는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촌 오빠의 상황이 더 이상 남일 같지 않다고 했다.

“저는 이태백이고요, 사촌 오빠는 삼일절이에요.”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이고, ‘삼일절’은 31세까지 취업 못하면 길이 완전히 막힌다는 뜻이다. 장기간 미취업자는 ‘장미족’,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취업이 어렵다는 뜻의 ‘낙타세대’라는 말도 있다.

대학 재학생들도 졸업생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을 ‘알부자족’이라고 하고, 방학이나 명절에 평소 시급보다 1.5배를 더 주는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을 ‘점오(0.5)배족’이라고 부른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도시락족’과 하루 생활비가 5000원이라는 뜻의 ‘5000원족’ 또한 팍팍한 청년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용어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요즘 청년들이 고생을 안 해 봐서 앓는 소리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청년 1인 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독립한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 석사학위 논문 최종 심사를 앞둔 대학원생 D씨(26세)는 대학생 때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다.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근이 해결하고 있다. 대학생 때는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대학원생이 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비싼 전공책과 학회비 등을 내느라 등골이 췌다.

그렇다고 낯날이 탄탄대로도 아니다. 졸업하면 인턴을 해야 하는데 급여를 많이 주는 곳이 80만원이다. 80만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원하는 진로를 선택했을 뿐인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꿈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D씨처럼 물리적으로 독립한 청년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삶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을 통틀어서 ‘청년 1인 가구’라고 한

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주거는 독립했지만 미취업 상태이거나 알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소득이 낮지만 주거 유지를 위해 비싼 월세나 전세를 감당하고 있다. 공과금도 그들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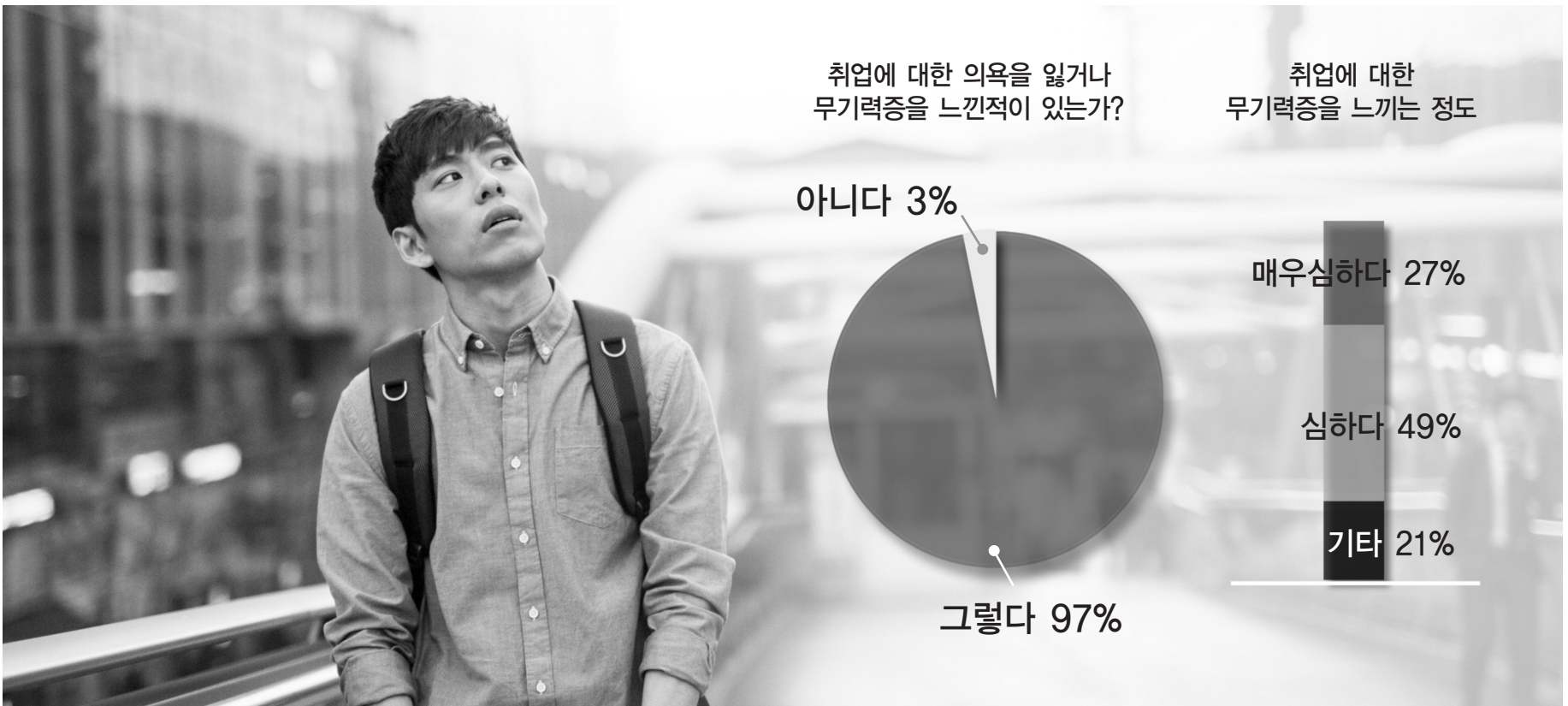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1인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56.8%)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원룸(68.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만 20~34세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10평이 채 되지 않았고, 10명 중 8명은 2년 이내 집을 옮겼다. 통계청 사회조사(2016년)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중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7.6%로 노인 가구 비율(2.9%)보다 훨씬 높았다. 그만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청년들의 빈곤현상이 니트족과 켑거루족을 양산하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성경에 돌파구가 있다 ‘요셉과 다윗처럼’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성경에 그 해답이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그 누구보다 불안한 청년기를 보낸 인물이 있다. 바로 요셉이다. 요셉은 17세 때 형들의 시기로 종이 되어 애굽으로 팔려갔다. 아버지의 준귀와 사랑을 받던 그가 낯선 이국땅 노예로 전락했다. 그가 팔려간 곳은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도 흡족하게 여겼다. 그 신뢰가 얼마나 깊었으면 요셉에게 집안일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했을까(창 39:4).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흑심을 품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거짓말로 옥에 갇히게 됐다.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아프면 약을 줘야 한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던 요셉이 또 다시 좌절을 맛봐야 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조차 충실했다. 간수장이 죄수인 요셉에게 죄수를 맡기고 제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창 39:22)만 봐도 그의 성실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13년 동안이나 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충실하게 섬긴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결국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7년 동안이나 이어진 대기근에도 사람들을 살리는데 중요한 통로로 쓰임 받았다. 요셉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충실함이 낙담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킨 원동력이었다. 이 해법이 고리타분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셉은 위기를 성실과 근면으로 탈출했다. 그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무서운 자산은 없다.

다윗은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다. 성경은 다윗이 본래 양을 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흔히 ‘양치기’라고 하면 평화로운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다윗이 감당해야 했던 고대의 양치기는 편안하고 즐거움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우리의 상상과 달리 양치기는 매우 힘들고 목숨마저 위태로울 때가 많은 직업이었다. 양들을 데리고 산과 언덕을 수시로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운동량이 필요했고, 언제 어디서 늑대들이 양을 덮칠지 알 수 없었다. 다윗은 이런 고된 양치기 일을 담대하게 해 나갔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키л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

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라...”(삼상 17:33-36).

다윗의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첫째,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 둘째, 그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명감이 충성된 삶을 살게 했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명감을 가진다면 이 시대 청년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교회의 역할, 위로와 돌봄, 정보제공

고달픈 청년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앓는 소리만 한다고, 의지박약이라고 핀잔해서도 안 된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다. 교회가 청년들의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위로처가 되어야 한다.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들을 보살피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다. 최근 이단들이 취업 알선과 토익 공부를 빌미로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신천지는 구직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술자리가 없고, 주일 성수도 할 수 있으며, 아침 큐티모임을 하고 있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포교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토익스터디를 하면서 영어실력과 신앙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영어큐티모임을 가장해서 유인하고 있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에게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이 시대 청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해주고, 실제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멘토링 서비스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 그리고 기도다. 실제로 취업난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무관심의 표현일 수 있다. 아픈 청춘들에게는 약이 필요하다. 교회가 그 약이 되어줘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벤처스’가 그것이다. 어!벤처스는 국내외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벤처대회다. 크리스천 CEO 포럼이 주관하고 사회선교부가 후원하고 있다. 국내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창업 3년 미만 청년벤처(팀에서 1명은 기독교인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창업을 통해 청년실업을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

‘청년부채탈출 119’도 있다. 청년부채탈출 119는 학자금 대출, 실직이나 실업, 생계비 조달, 과소비 등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부채탈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부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50세 이하(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온누리교회 소속 청장년 이 대상이다. 외부 재정상담 전문가와 협력해 청년들이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본격적인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 문제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려는 청년들에게 이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이 시대 청년문제를 웅변하는 용어들

캥거루족: 독립할 나이가 됐지만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청년.

니트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

청년실신: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실업자’가 되고,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

NG(No Graduation)족

: 졸업을 계속 미루는 청년.

동지족: 학교라는 동지를 벗어나지 않는 청년.

낙타세대: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취업이 어려움을 가리킴.

장미족: 장기간 미취업자.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삼일절: 31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길이 막힌다는 뜻.

청년 1인 가구

: 주거는 독립했지만 미취업 상태이거나 알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

알부자족: 알바(아르바이트)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학생.

점오(0.5)배족: 방학이나 명절이면 평소 시급의 1.5배를 주는 일자리를 찾는 학생.

도시락족: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는 학생.

5000원족: 하루 5000원으로 생활하는 학생.

15년 만에 결혼식 올린 날

신랑 모함마드, 신부 김은석, 하객 북누리공동체

무려 15년 만에 올린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다. 신랑은 하셰미안 모함마드(48세), 신부는 김은석(45세), 하객은 북누리공동체였다. 오랜시간 떨어져 있던 신부의 부모도 오셨다. 하셰미안 모함마드와 김은석 부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북누리공동체가 사랑으로 차린 천국잔치에 다녀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우리가 진짜 결혼식을 했어요. 꿈만 같아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신부 김은석 성도의 눈과 코가 빨갛다. 보고만 있어도 그녀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있는지가 느껴졌다. 신랑 모함마드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모함마드는 1993년 한국에 왔다. 23살 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이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지금보다 이주민에 대한 대우가 더 박했다. 혹독한 한국살이를 겪어야만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과 억울한 처우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그에게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았다.

“365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분명 바른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미움이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퇴사와 입사를 반복했다. 그러다 2000년 봉제산업장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

“아내를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끊임없이 구애를 했죠.”

두 사람은 2002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아내도 남편처럼 사랑이 몹시 그리운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엄마까지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아빠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새엄마를 받아들일 마음

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 탓에 김은석 성도는 남들보다 일찍 독립했다. 마음에는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했다. 그때 남편을 만났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행복한 새 삶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결혼생활이 아니었다.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마음이 피폐해져더라고요. 서로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경찰이 저희 집에 찾아왔겠어요.”

부부사이만 나쁜 것이 아니었다. 남편 모함마드가 새로 입사한 공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너무하다 싶었다. 모함마드의 마음 속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모든 것이 짜증나고 만족스럽지 않았다. 신경이 늘 곤두서 있었다.

진실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을 일깨우고

예민하고 곤두서 있던 남편은 늘 불안했다. 그에게는 분명 변화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다. 북누리공동체 신섭 다락방장이 그 주인공이다. 남편 모함마드가 북누리공동체 신섭 다락방장이 운영하는 열쇠금고 가게 손님으로 왔다. 신 다락방장은 아직도 모함마드를 처음 본 날이 잊히지 않는다.

“어찌나 까다롭게 주문을 하던지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모함마드의 눈빛만 봐도 알



▲ 북누리공동체와 함께.
◀ 신랑, 신부가 공동체의 축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수 있었어요. 그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신 다락방장은 모함마드를 불편한 객으로 여기지 않고 전도대상으로 삼았다.

“자꾸 불평하는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함마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모함마드를 찾아갔어요.”

신 다락방장은 모함마드 형제와 함께 밥을 먹고 예배를 드렸다. 심방도 했다. 날이 좋으면 아내 김은석 성도도 데리고 함께 산에 갔다. 그렇게 3년 동안 온 마음을 쏟았다. 모함마드의 마음이 먼저 열렸다.

“신섭 다락방장님에게 깊은 신뢰가 쌓였어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순식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올라오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신 다락방장과 순식구들의 진실 된 사랑이 모함마드를 위로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무슬림인 그가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은 모함마드의 세례식 날 아내 김은석 성도도 만나 주셨다. 남편의 세례식을 보러 온 아내가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다.

“찬양소리가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주시는 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난생처음 맛보는 기쁨이었다. 더 이상 걱정거리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위기는 계속됐다.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친 김은석 성도에게 큐티가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이 꼭 그녀에게 하신 말씀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니까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넌 왜 나를 믿지 못하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잘못된 모습들이 떠올랐다.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날 이후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남편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이해

하게 됐다. 심각하게 갈등하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때부터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김은석 성도는 지금 공동체 큐티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 잘하기로 소문도 나왔다. 그녀의 삶에서 우리나라 진술한 나눔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다. 아내의 변화는 남편도 완전히 변화시켰다.

“남편이 말씀과 사랑에 빠졌어요. 한글을 잘 모르는데도 큐티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해요. 설교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니까 가정도, 직장도 회복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배필임을 깨닫고 있어요.”

또 하나의 선물 ‘결혼식’

부부관계가 회복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다. 바로 15년 만에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정말 엄두조차 못 냈어요. 북누리공동체에서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과 북누리공동체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하객으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들의 걱정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주셨다. 북누리공동체 지체들이 그들 부부 결혼식의 하객이 되어줬다. 결혼식 날 김은석 성도의 뜻깊은 만남도 이어졌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부모님이 오셨다.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은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결혼식 한다고 연락을 드리는데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몰라요.”

그들 부부의 결혼식은 상처로 얼룩진 가정이 다시 만나 화해하는 장(場)이었다. 결혼식 내내 딸을 바라보는 김은석 성도의 부모님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딸에게 많이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그것 말고 바랄 게 있나요. 결혼식을 열어준 온누리교회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픈 MK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선교사 자녀)

선교사 가정이 살아야 열방에 복음이 전해진다

선교사 자녀들이 아프다. 영문도 모른 채 부모를 따라 문화와 환경, 언어와 정서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몸까지 아프니 더 서럽다. 물론 복음 전하는 일보다 중요하고 귀한 삶이 없지만 선교사와 어린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선교지가 의료시설이 열악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든 경우도 많고, 한국에서 치료받더라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마저 없으면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태어난 지 29개월 된 다엘이는 선교사 자녀다. 아장아장 걷고, 서툰 발음으로 의사 표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나이지만 다엘이는 아직 말을 하지 않는다.

다엘이는 발달 지연이 있다. 나이가 어려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중증’ 성향이 보인다는 진단을 최근에 받았다. 29개월 아이가 때때로 찬 바닥에 누워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 다엘이에게 자폐 성향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꿈이기를 바랐다.

다엘이 부모는 아프리카C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다. 다엘이가 태어난 지 13개월 만에 선교지로 떠났다.

“저희 부부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필리핀에 갔을 때 다엘이가 50일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목도 못 가누는 아이에게 너무 이른 것 아니냐며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다엘이 부모 아길라, 프리실라 선교사가 필리핀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만해도 다엘이는 낯을 잘 가리지 않고 웃음기 많은 아이였다.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도 잘 적응했다. 그 덕분에 아길라 선교사 부부는 큰 걱정 없이 선교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생후 13개월 된 다엘이를 품에 안고 아프리카C국으로 떠났다.

다엘이는 아프리카C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현지인들과 아길라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때가 지난 4월이었다.

“자폐성 장애가 의심됩니다. 어서 한국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돌 즈음에 실시한 발달검사에서 사회성 발달이 조금 늦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고 인사도 주고받았다. 그런 다엘이가 퇴행하여 자폐성 장애가 의심된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아프리카C국에 있을 때 ‘다엘아 할머니께 인사해야지’ 라고 하면 서툴지만 두 손 모아 꾸



선교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엘이 가족.

벽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강아지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손가락으로 가리켰고요. 잘 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18개월 즈음부터 퇴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사역이 바빠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엘이는 아주 천천히 세상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이웃들이 인사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모아둔 재활용품으로 탑을 쌓고, 장난감을 일렬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행동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가 탑을 쌓고 일렬로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게 자폐 성향을 가진 아동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저희 그것도 모르고 다엘이가 정리정돈을 잘 하고 탑을 잘 쌓는다고 박수 치며 칭찬을 했어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현실과 제대로 마주한 것은 지난 부활주일이었다. 동료 선교사가 다엘이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다엘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동료선교사께서 민망해 하실까봐 ‘다엘이가 난청이 있나 봐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조심스레 자기 주변에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폐아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이 말을 했더니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하더니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동안 다엘이가 보인 행동들이 모두 자폐아동들이 보이는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현지 병원을 찾아갔다. 아니길 바랬지만 의사는 말했다.

“발달 지연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자폐 성향도 보이지만 정확한 진단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하더라고요.”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그렇게 한국에 귀국하였고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진단서에는 ‘자

폐 스펙트럼 장애(ASD) 중증 특징 및 10개월 미만 수준의 발달월령(DA)’ 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다엘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요.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아프리카C국에는 자폐아동을 위한 복지와 교육이 전무하니까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전문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는데 그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사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다엘이의 이야기를 들은 한 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엄마가 다엘이와 함께 치료에 참석하고, 치료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 선교지에 돌아갔을 때 엄마가 다엘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도왔다.

다엘이 가족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아프리카C국에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아길라 선교사 부부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길라 선교사는 오는 6월 20일 아프리카C국으로 돌아간다. 다엘이와 엄마 프리실라 선교사는 치료를 조금 더 받고 돌아갈 예정이다.

다엘이 가족은 지난 2달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러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폐 의식개선’이라는 새로운 비전도 생겼다. 아프리카C국은 자폐증 환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의료서비스가 낙후되어 있다. 부모들이 자녀가 자폐가 있다는 것을 감출 수밖에 없을 만큼 인식도 좋지 않다. 의사가 아닌 다엘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식개선 뿐이다. 그래서 자폐 아동을 둔 부모가 또 다른 자폐 아동을 둔 부모들을 위하여 사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관심과 중보기도를 하는 것뿐이다. 다엘이 가족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다엘이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아픈 자녀가 있으면 부모들은 반쯤 전문가가 되거든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프리카C국 학교에 특수아 급을 만들 수도 있고 자폐 아동을 둔 부모들과 교제하며 정보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내는 앞으로 이런 특수분야를 공부해서 다엘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원해요.”

아길라 선교사는 다엘이가 자폐 아동들이 한 자가 아닌 남들과 조금 느리고 다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모델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엘이처럼 자폐 증상을 보이거나 발달 장애로 신음하는 선교사 자녀들, 몸이 아파서 신음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너무 많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때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이 산다. 그들이 살면 당연히 열방에 복음이 전해진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엘이와 다엘이 부모, 이 세상 모든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지금 바로 잠깐이라고 기도하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

국가	부모 이름	자녀	병명
남아시아A국	보아스, 나오미	이아삭	부인과 질병, 빈혈
남아시아A국	이기쁨, 문하나	이윤아	축농증
남아시아B국	김하수, 배지연	김진아	왼쪽허벅지 2도 화상
중앙아시아K국	김필립, 이시라	김정윤	녹내장, 높은 안압, 면역력 저하
스리랑카(예정)	데이빗, 베라	유지혜	뇌종양 수술 후 합병증(시력저하)
동아시아A국(예정)	김주의, 김혜현	김민서	성 조숙증
동아시아B국	토마스, 미셸	윤해린	소화기 질환
동아시아A국	양아브라함, 천사라	양경주	고도원시
유라시아A국	김창규, 장문선	김다니엘	역류성 식도염
동아시아C국	백두, 한라	이하은	틱
국내	이생명, 이생물	이예준	안검하수, 약시, 원시
케냐	김현우, 우주희	김하람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중동E국	최밀알, 이명강	최예성	알러지비염
중동E국	서요셉, 황로즈	서희원	알러지비염
중동B국	이빛, 이샘	이다니엘	잦은 복통, 두통
중동G국	오갈렐, 김세리	오노암	간질, 감정기복
중동E국	박검손, 장에스터	박로이	아토피
국내	허길, 유진리	허요한	틱
아프리카C국	아길라, 프리실라	이다엘	백반증
아프리카S국	피터, 조한	이승민	자폐 스펙트럼 중증 장애
아프리카D국	홍요한, 에스더	홍요셉, 홍요단	비염(코피가 잦음)
중동D국	유종철, 신명옥	유주성, 유주찬	잦은 복통
			손과 얼굴에 번진 사마귀
			어깨근육 손상, 손가락 관절

복음통일을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

통일세미나 ‘기독교 입장에서의 통일정책 방향’



지난 2일 열린 통일세미나에서 복음통일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한국 교회가 말로만 복음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난 2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된 통일세미나에는 국내외 통일사역자, 시민, 성도 120명이 참석해 한국 교회가 구상하고 있는 복음통일이 무엇이고, 복음통일을 위하여 한국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구체적으로 ‘국민중심 복음통일안’의 장단점을 논했고, 교회와 성도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통일을 외치지 않는 교회가 없다. 한국 교회 전체가 통일은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명쾌한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말로만 복음통일을 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통일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정말 통일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세미나에서는 복음통일 방법을 찾기 위해 반성부터 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말로만 복음통일을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봤다. 그리고 더 이상 말로만 통일을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도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이번 통일세미나 주제를 ‘기독교 입장에서의 통일정책 방향’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통일세미나는 한국 교회와 통일단체들이 복음통일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었다. 국내에서 통일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구자들이 모였다.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 할렐루야교회 장로)가 ‘통일과정’, 조요셉 목사(물댄동산교회)가 ‘탈북자의 역할’, 주도홍 교수(백석대학교원 부총장, 역사신학 교수) ‘교회의 역할’

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중석 목사(북한교회세우기연합 사무총장), 윤현기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 송원근 교수(Acts 선교대학원 북한선교학교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문화, 사회, 경제 순으로 ‘국민중심 복음통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의 개회사로 통일세미나의 문이 열렸다. 김 박사는 “교회는 세상의 정책과 달라야 한다”면서 교회가 시행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북한 주민들과 자유롭게 교류해야 통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허문영 박사는 기존의 통일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 ‘국민중심 복음통일’을 제시했다. 허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 경제위기가 여여 한반도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1950년대는 전쟁통일론, 1990년부터 지금까지는 유화적 대화통일론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다가오는 국제정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독일, 예멘의 통일을 예로 들어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쟁으로 통일한 베트남, 대화로 통일한 독일, 전쟁도 하고 대화도 했던 예멘 모두 막대한 통일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은 국민이 주도하고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순의 단계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바로 국민중심 복음통일이라고 설명했다. 허 박사가 제시한 국민중심 복음통일은 문화, 사회, 경제 순으로 통일을 이뤄나가야 이념적,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통일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크리스천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통일한국 시대 크리스천들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복음통일 중심에 탈북민이 있다

조요셉 박사는 “복음화 된 탈북민들이 이미 복음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조 박사는 “국민중심의 복음통일을 이루려면 북한 주민들과 교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북한 주민들과 교류할 방법이 없는 것이 과제”라며 국민중심 복음통일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남북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탈북민은 북한을 잘 알고 있고, 비공식 루트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만약 탈북민들이 고향에 전화해서 “한국 너무 좋고 예수님은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중심의 복음통일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박사는 복음통일을 완수하려면 탈북민들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한국 사회와 교회가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탈북민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목회 노하우를 전수하고, 한국 교회는 북한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탈북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중심의 복음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 윤현기 박사는 “탈북자들과 한국 교회의 복음통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인과 탈북자가 함께 훈련받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회의 영적각성과 통일신학 재정립 필요

주도홍 교수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비로소 국가의 통일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통일은 국가나 교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룰 수 없으며, 교회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우면서 복음통일을 이뤄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주 교수는 공적신학, 통일신학의 확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국가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각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회에서 통일을 이야기 할 때 돈과 정치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회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통일에 앞장서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기고, 통일에 무관심했던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토론자 송원근 교수도 주 교수가 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송 교수는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통일사역자들은 아직도 20세기 이전의 공공신학을 예로 들며 통일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신학에 대한 새로운 개념 확립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의서 장로(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위원장)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복음통일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통일과 탈북사역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복음통일 이것이 궁금하다

복음통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허문영 박사: 복음통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걸림돌은 국제 열강도 아니고 북한의 핵문제도 아닙니다. 본질은 사탄입니다. 복음통일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북한 동포와 북한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통일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북한 동포들을 미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해답은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통일사역을 하는 단체들을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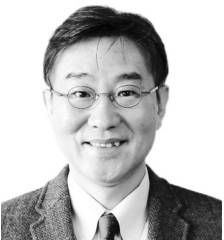
조요셉 목사: 교회가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별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직 탈북자들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허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보다 그들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탈북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탈북사역은 특수한 사역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이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탈북자들을 찾아가 교제하기를 권합니다.

영화로 만나는 일터와 영성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일하세.(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 아카데미를 섬기고 있는 서명수 장로(수원 온누리교회)가 지난 3일 GUM(Get Up in the Marketplace)예배에서 '일터에서 뱀처럼 지혜롭게'을 주제로 강의했다. 영화 세 편을 보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크리스천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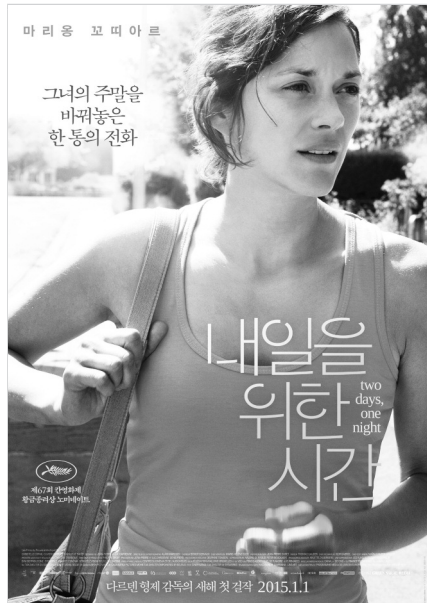
서명수 장로
(중앙대 프랑스어문학 교수)

보통 성경에 나오는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혜의 상징이었고, 예수님도 뱀을 이런 뜻으로 사용하셨다. 신명기에서는 지혜를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는 것”(신 24:6)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규례와 법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마 22:37-42)이라고 말씀하셨다. 크리스천의 지혜란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일터에서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다음 세 편의 영화는 개인의 관점,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게 한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 도와라

첫 번째 영화는 <내일을 위한 시간>이다. 이 영화는 개인의 관점을 다뤘다. 주인공 ‘산드라’는 병가 후 복귀를 준비하던 중에 해고를 당한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산드라를 해고하고, 그의 급여를 보너스로 받든지 아니면 산드라를 복직시키든지 투표로 결정하라는 제안을 한다. 1차 투표에서 직원들은 산드라의 해고를 선택했다. 동료 줄리엣의 도움으로 사장을 찾아간 산드라는 재투표를 허락받는다. 산드라는 자신의 복직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16명의 동료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렇게 산드라의 해고와 복직은 회사 또는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드라 개인의 문제 또는 개인(산드라) 대 개인(직장동료)의 문제가 된다. 산드라는 동료들을 찾아 설득했지만 결국 복직에 실패한다. 그날 사장은 산드라에게 계약직을 재계약하지 않고 대신에 그녀를 복직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산드라는 사장의 제안을 거절한다. 자기 대신 계약직직원이 해고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의 영화이다. 그런데 산드라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천이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산드라가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인턴', '히든 피겨스' (왼쪽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

이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규범들을 지키는 것이며, 믿는 자들의 ‘지혜’라는 것이다. 일터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라

두 번째 영화는 <인턴>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일터란 소통의 체계로 이루어진 관계의 망이다. 관계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친밀도를 기준으로 하는 수평적 관점과 계급 또는 권력을 기준으로 하는 수직적 관점이 그것이다. 수평적 관점에는 4개의 유형이 있는데 직장동료의 관계는 그 중에서 사회 관계를 말한다. 하지만 일터에서도 아주 가까운 동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가 친밀도가 더 강한 친분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수직적 관점에서는 대칭관계와 비대칭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대칭관계는 동기와 같은 동등한 관계를 말하며, 권력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비대칭관계는 상급자와 하급자와 같이 어느 한쪽이 항상 우위에 있는 관계이다. 일터에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섞여있다.

건강한 관계, 즉 지혜 있는 관계는 역동성 있는 관계이다. 관계란 소통의 프레임이고 규범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지고 나면 바뀌지 않으려는 항상성의 법칙에 지배된다. 따라서 사회관계지만 언제나 친분관계로 진입할 수 있고, 대칭관계지만 때때로 비대칭관계가 허용되는 열린 소통의 프레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건강하고 역동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크리스천들은 일터에서 이런 열린 프레임을 설정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턴은 그것의 방법과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다.

주인공 ‘벤’은 우연히 나이 많은 인턴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한다. 그곳은 창업자 ‘줄스’가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 개방적인 분위기의 회사이다. 회사의 이런 분위기는 줄스가 사장이지만 때로는 직접 고객불만 전화를 받는 등 그녀의 열정과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영화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주변 사람들과 열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장 줄스의 소통방식. 줄스는 인턴 벤과 사회관계-친분관계, 비대칭관계-대칭관계 사이에서 프레임의 갈등을 겪지만, 곧 진솔한 사과와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한다. 열린 관계를 만드는 소통의 프레임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일터를 하나님 축복이 흐르는 장소로

세 번째 영화는 <히든 피겨스>다. 이 영화는 법, 제도,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게 한다. 사회의 제도나 구조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소외계층을 생산해 낸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히든 피겨스는 사회제도가 구조에 대한 관심, 변화와 새로운 문화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인 문제는 리더가 아닌 이상,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해내기 쉽지 않다. 교회가 나서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사회적으로 아직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던 1960년대에 미국의 우주항공 분야를 진일보 시키는데 공을 세운 3명의 흑인 여성의 이야기이다. NASA(미항공우주국)의 계산 부서에서 일하던 천재 수학자 캐서린은 어느 날 우주선의 궤적을 계산해내는 핵심부서로 배치된다. 흑인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무시를 당한다. 그러나 그 부서를 이끄는 핸더슨 연구부장은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고, 숫자 너머의 곳을 보아야 한다는 충고의 말을 아끼지 않으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말



긴다. 어느 날 매우 급박한 계산이 필요했던 때에 캐서린이 한동안 자리에 없다가 나타나자 핸더슨은 그 이유를 다그치는데, 이 부분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다. 캐서린은 용변을 보기 위해 40분 동안 걸어서 다른 건물에 다녀왔던 것이다. 그 건물에는 흑인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다. 핸더슨은 문제를 깨달은 즉시, 햄머를 들고 화장실로 가서 ‘흑인용’이라는 팻말을 부수어버린다. 그의 행동은 바로 차별이라는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는 행동이다. 나아가 그는 캐서린에게 지금까지 흑인은 물론 여성도 들어간 적이 없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그녀가 찾아낸 수학으로 미국은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고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영화는 선하지 않은 구조나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때 악이 제거되고, 건강한 사회,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핸더슨은 일터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캐서린의 재능이 꽃필 수 있게 도왔다. 크리스천들도 이 영화 속 핸더슨처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행동하는, 그래서 건강한 사회와 일터를 만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죄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일과 일터는 고통과 소외의 대상이 되었다(창 3:17-19).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에서 풀려난 우리에게 일터는 더 이상 고통이나 소외된 장소가 아니다. 축복의 장소이다. 크리스천들은 일터를 하나님의 축복을 장소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 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신 15:4-5).

안전관리분과위원회가 제안하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나기①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실천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한여름도 아닌 데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 장기예보(6~8월)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한다. 날씨가 더울수록 음식이 잘 상하고, 식중독 환자가 급증한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다. 온누리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김형중 장로가 식중독 예방 요령과 대처요령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형중 장로
이촌공동체
전 식약처 근무

식중독은 상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 물질에 의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7~8월은 식중독균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계절

이다. 음식물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웃리치 전과 후, 가정과 여행지에서 식중독 예방 요령을 잘 실천해야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3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가 바로 그것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요령

손 씻기: 세정제(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익혀먹기: 음식을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끓여먹기: 물을 끓여서 마셔야 한다.

아웃리치와 여행지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1) 모든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한다.

2)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불확실한 식품, 상온에 방치해 부패 및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린다.

3) 여행지에서 직접 취식할 경우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사용한다.

4)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 소독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비누를 사용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5) 외부활동 중에도 식사 전이나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6)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을 두지 말고 반드시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한다.

7) 길거리음식이나 위생 취약시설의 음식 섭취를 자제한다.

8) 산이나 들에서는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않는다.

9)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탈수방지를 위해 끓인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어서 마신다.

10) 여행 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모두 버린다.

11) 여행을 다녀와서 칼, 도마, 행주 등은 열탕소독하고, 세척·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한 다음 잘 말려서 사용한다.

12) 해외 아웃리치를 갔을 경우 물은 사먹고 물티슈와 손 소독제를 준비한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

1)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고 다음의 대처 요령을 숙지해 식중독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2) 설사 환자: 병원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토록 한다.

3) 구토가 심한 환자: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설사약은 설사를 통해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독소의 배출을 막아 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5) 환자 구토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해 닦아내어 비닐봉지에 넣

어야 한다. 가정용 락스 등으로 소독해 2차 감염을 방지한다.

안전한 식품섭취를 위한 다섯 가지 방법

1) 청결 유지

-식품을 다루기 전, 조리하는 중간에 손을 자주 씻는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한다.

-조리장소와 식품을 곤충, 해충 및 기타 동물로부터 보호한다.

*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미생물은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유해한 미생물은 토양, 물, 동물,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유해 미생물은 손, 행주, 조리기구, 특히 도마를 통해 옮겨질 수 있고, 경미한 접촉으로도 식품에 옮겨져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의 분리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을 다른 식품과 분리한다.

-칼, 도마 등 조리 기구는 가열한 식품과 비가열 식품용으로 구분해 사용한다.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비가열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그 육즙에는 유해한 미생물이 있을 수 있는데 식품 조리 및 보관 중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식재료 등 완전히 익히기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계란, 해산물은 완전히 익힌다.

-수프 및 스투와 같은 식품은 반드시 70℃까지 가열해야 한다. 육류나 가금류의 육즙이 분

홍색을 띠지 않고 맑게 될 때까지 가열해야 한다.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조리되었던 식품은 완전하게 재가열한다.

*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적절하게 가열하면 유해한 미생물은 대부분 죽는다. 연구에 의하면 식품을 70℃까지 가열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다진 고기, 구이용 고기말이, 뼈가 붙어있는 고기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4) 식재료 등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조리한 식품 및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5℃ 이하)

-조리한 식품은 먹기 전에 뜨거운 상태(60℃ 이상)로 유지한다.

-냉장고 안이라도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다.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

5) 안전한 물과 원재료 사용하기

-안전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한다.

-살균 우유와 같은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한다.

-과일, 채소를 가열 없이 그대로 먹을 경우에는 잘 씻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물과 얼음 등을 포함한 식품 원재료는 유해한 미생물 및 화학물질에 오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손상된 식품이나 곰팡이가 핀 식품에는 유독한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럴 땐 식품 원재료 선택 시 주의를 기울이거나, 세척 및 껍질 벗기기 등과 같은 간단한 처리로 위해를 줄일 수 있다.

장마철 식중독 예방 요령

장마철에는 많은 강우량으로 하수나 하천 등이 범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채소류나 지하수 등에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식중독균이나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모든 음식물을 익혀 먹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득이 생식할 경우에는 수돗물로 철저히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1) 침수되었거나 의심되는 채소류나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할 것.

2)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할 것.

3) 행주, 도마, 식기는 매번 끓는 물 혹은 가정용 소독제로 살균할 것.

4) 물은 반드시 끓여 먹을 것.

5) 실외에 있는 된장, 고추장 독에 비가 새어 들지 않도록 할 것.

6)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을 것.

■ 내가 만난 하나님



/ 홍성주 자매(SNS공동체)

그래서 나는
콰이어 단원이 되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을 넓혀야 할 것 같았다. 그 영역을 넓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과의 대화시간을 늘리는 것이겠지만, 나의 나약함 때문인지 생활 속 예배들이 지속되지 못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으로 모시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콰이어 단원이 되었다.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한 달에 한 번 짧은 시간만 서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재활치료 중인 내 무릎에도 큰 무리가 안 갈 것 같았다. 탈북민예배, 노방전도, 선교 등 그동안 무릎이 좋지 않아 포기해야 했던 사역들이 많아 아쉬웠는데 콰이어로 섬길 수 있게 되니 그 아쉬움들이 설렘으로 변했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 그럼에도 콰이어에서 섬긴다는 것이 걱정되지는 않았다.

첫 연습은 부활절 특수이었다. 4월에는 부활절 특수 외에도 고난주간 특수가 있었다. 홀리임팩트CD 녹음을 위해 화요성령집회 무대에도 서야 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꼭 빠지는 나답게 모든 무대에 함께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런데 연습을 시작하고 보니 벅했다. 화요성령집회 무대는 1시간 정도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올 것 같았다. 그래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이 내 무릎을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하며 연습에 참여했다. 무릎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무릎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무대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의문

이 들었다. 결국 나는 무릎이 아프고 심적 부담감으로 팀장님께 양해를 구했다. 화요성령집회와 고난주간 특수를 바로 전날 취소했다. 좀 허무했다. 내가 욕심내고 있었음을 자각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중에 뚜렷한 계기 없이 무릎이 망가져서 1년 동안 휴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도 주실 거라고 하셨다.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나는 흘러가는 시간과 주변 시선들이 두렵고 조급했다.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된 콰이어 활동에 조금 흥분을 했었나 보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가 항상 나의 의에 무너지는 것 같아도 몸과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인간적인 본능을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콰이어를 섬기면서 날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 집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듣고, 부르고, 연습하러 갈 때마다 기도하고, 오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연습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성가사님과 팀장님, 부팀장님, 반주자님의 열정이 힘이 된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고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첫 발자국을 내딛을 때 내가 부르고 있을 찬송은 어떤 가사와 멜로디일지 참 궁금하다.

■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을 마치고



/ 김지화 자매(하늘공동체)

내 영혼의 그릇

하나님은 기대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번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집회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였다. 나는 카운트다운 집회 스태프로 섬겼다. 모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카운트다운 둘째 날 아침에 드렸던 ‘카운트 6’ 예배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쉽게 흔들릴 때 자괴감을 가장 많이 느낄 것이다. 이상준 목사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셨다.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가다 말다를 반복하기 때문이었다. 가끔 가는 수련회나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이 머지않아 사라진다.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다보면 그때의 마음이 온데간데없어진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만 의지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아웃리치에서 만난 하나님만 기억하고 나를 새로이 만나주실 하나님을 외면했다. 은혜가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고갈되고 넘어졌던 것이다.

또 내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말씀은

사람의 영혼은 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에 세상의 것을 채울수록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메시지였다. TV보는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고, 잠자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내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유익에 심취해 있었다. 영적인 메마름이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설교를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해졌다. 내 기준에서 충분하다고 느꼈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영혼의 그릇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졌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포기했던 것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미디어금식을 시작했다. 답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함을 얻었다.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믿었던 것들을 끊었더니 참된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 세상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순 없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작은 노력을 기뻐하고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다. 내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부어주시길 것이다.

제5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개최

이경석 원목
(기독교선교햇불재단)

이경석 원목 (기독교선교햇불재단)은 “마음 한편에 유럽에 머물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안쓰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유럽에 계신 한인디아스포라들을 직접 가서 섬기고 싶다”고 밝히며 이번 대회가 독일에서 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햇불재단은 ‘제5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는 8월 15~17일에 개최한다. 대회장 이형자 이사장님

은 “마음 한편에 유럽에 머물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안쓰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유럽에 계신 한인디아스포라들을 직접 가서 섬기고 싶다”고 밝히며 이번 대회가 독일에서 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지나해까지 네 차례 선교대회를 통해 1,603명의 디아스포라 선교헌신자를 얻은 햇불재단은 그들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다. 그동안 햇불재단은 선교대회를 통해 ‘보내는 선교에서 세우는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앞으로 100년의 선교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대회에는 이형자 이사장, 이재훈, 진재혁, 유기성, 노창수, 이찬규, 권혁빈 목사, 김춘근 교수 등 국내외 귀한 강사들과 함께 사흘 동안 진행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이때 독일에서 열리는 한인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는 한국 교회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종교개혁 500주년과 디아스포라

될 것이다.

선교대회 전후로 7박8일 동안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는 성지순례도 준비된다. 주요 코스로는 대화와 독일의 몇몇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 A코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체코 순으로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는 B코스, 독일, 체코,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C코스, 교회사 학자 이정숙 총장과 함께 독일, 체코, 스위스와 프랑스의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는 D코스가 있다.

주요 방문 도시로는 루터의 생가가 있는 아이슬레벤, 학생과 수도사로 살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에르푸르트, 종교개혁이 점화된 비텐베르크, 교황청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루터의 믿음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보름스 등지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안 후스의 나라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순교자의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보게 될 것이다. 칼뱅이 활약했던 스위스의 제네바와 취리히를 방문해 하나님의 통치가 한 도시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알프스 산맥

의 풍광과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프랑스의 몇 도시도 방문해 현대적인 도시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500년 전 고뇌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일정: 8월 15~17일

장소: 프랑크푸르트, Jahrhunderthalle

강사: 이재훈 목사, 진재혁 목사, 유기성 목사, 권혁빈 목사, 김춘근 교수 등

문의: 02-570-7068

종교개혁 성지순례

일정: 8월 18~24일(OMA는 별도의 일정)

비용(항공료, 숙식 포함)

A코스(4박6일, 독일, 220만원)

B코스(10박12일, 독일, 체코, 스위스, 프랑스, 330만원)

C코스(10박12일,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310만원)

D코스(10박12일, 독일, 체코, 스위스, 프랑스, 330만원)

문의: 010-6380-9131, 010-8226-7728

장로칼럼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노홍규 장로
(중종로공동체)

십여 년 전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때였다. 어느 날 동반자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내심 당황했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었다. 그런데 나의 설명을 들은 동반자의 반응이 그다지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목사님께 문의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알려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 부끄러운 과거이다.

얼마 전 ‘Desiring God 컨퍼런스’에서 나는 그때 확실하게 답해주지 못했던 질문의 답을 찾았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복음으로 빚어진 심장, 마음과 입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직하고, 알고, 전하라”고 권면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다. 존 파이퍼 목사의 열정적인 음성과 질문, 적극적인 도전의 말씀, 내면에서 배어난 온유와 겸손한 발언이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스스로를 입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메시지를 듣는데 오래 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본 그룹이 생각났다. 비행기 창을 통해 본 그룹은 몇 겹의 피와 단을 이루고 있었다. 형형색색이었다. 작품이 따로 없었다. 감탄한 나는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그룹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고 은혜를 나눴었다.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다.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간의 죄,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엢 4:18)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어둠과 잘못된 우선순위를 비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한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궁극적인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인간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 13:44).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대언해 주고 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존 파이퍼 목사의 성찰은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게 하신 것을 감사드렸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앞으로도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변화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읽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멘토칼럼

보물찾기



최혜영 멘토
(SNS공동체)

내가 청년부인 SNS공동체의 멘토로 섬긴지 3년이 되었다. 매주 주일 SNS예배를 드리러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비전을 입구에 들어서면 SNS공동체 청년들이 밝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며 반갑게 맞아준다.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은 세상 속에서 교회로 모여드는 청년들이 정말 예쁘고 멋지고 특별해 보인다.

자리에 앉기 전에 몇몇 청년들과 눈인사도 나누고, 어깨도 다독이고, 포옹도 하고, 손을 마주잡고 한 주 동안의 안부를 묻는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보면 어느덧 비전홀이 900명이 넘는 청년 예배자들로 가득 찬다.

멘토라는 호칭에서 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청년들과의 나눔과 교제를 자유롭게 돕는 귀중한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참 감사하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한다.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청년들과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한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나도 청년의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껏 정말 바쁘게 달려왔다.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지만 SNS공동체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른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나의 청년 시절을 다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때를 돌아보면 나도 그랬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선포하며 견뎌낸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고난의 시간도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되돌아보게 되었고, 성품 좋은 남편을 만나 34년을 함께 살고 있다.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법이다”(마 6:21).

나의 보물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이후로 나는 매일 주님과 만나서 비밀 이야기를 나눴다. 말씀을 통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의 일까지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만났다. 찬양하고, 잠을 잘 때도 만났다. 어떤 날은 말없이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울고 웃는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한 것이 마냥 좋기만 하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가족들 곁에 계신다.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친구가 되어 주신다. 궁극적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 주고 계신다.

SNS공동체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떡을 떼며 교제한다. 저마다 모습과 상황은 다르지만 오직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찾으려는 갈급함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귀한 보석임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귀한 보석들을 꺼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조호영 목사
(여성사역본부)

“여전도회와 여성사역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끔 이 질문을 받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여전도회가 여성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임이라면, 여성사역은 교회가 여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여성사역은 한 여성이 변화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와 나라 더 나아가 세상이 변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돕는 배필로서 창조된 여성인 이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 죽음이 임했다. 그러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눅 1:38)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리아의 순종으로 온 인류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시기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들이 있었다. 동정녀 마리아를 비롯해서 늘 주의 발 앞에서 말씀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 귀중한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부활소식을 전했던 마리아가 있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은 이 땅의 여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처럼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하고, 바른 정체성을 찾고(창 1:17, 2:18),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돕고 있다. 여성사역은 두 가지 비전이 있다.

믿음의 여성들이여, 오라!

첫 번째 비전은 ‘Eve2Mary’이다. 이 시대 모든 여성들이 죄의 통로, 사망의 통로였던 이브에서 생명과 구원의 통로인 마리아로 변화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두 번째 비전은 ‘마리아행전’이다. 변화된 마리아들은 나의 가족, 우리교회를 넘어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여성들이어야 한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된 마리아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6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3일간 진행된다. ‘SENT 보냄 받은 자’란 주제로 문을 여는 마리아행전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직장 때문에 함께 참여하

지 못했던 여성들을 위해 ‘저녁마리아행전’을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 그리고 24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새롭게 준비하며 많은 직장여성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은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뽀얍이다. 우리의 기도예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이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며, 이 나라와 민족,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눈물의 미스바 광야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곳에 모인 모든 마리아들은 분명히 우리를 가정과 직장으로 또 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보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한 마리아로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삿 7:4).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입에 대고 훔아먹는 사람과 무릎 꿇고 먹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을 훔아먹는 먹는 사람은 3백 명이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3백 명만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분한 이유는 적은 쪽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만2천 명에서 3백 명만 남기셨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주신 비전이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힘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지리멸렬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부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과 무관하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드온의 삼백용사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나단과 병기 든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적과 싸우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너무 많은 비전과 사역을 주신 것이 감사합

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CGNTV, NGO 더멋진세상, 한동대학교 등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비전과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기드온의 삼백용사가 되어야 하고,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 똘똘 뭉치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 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댁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밀가루 한줌과 기름 몇 방울 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깐 말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군사 숫자를 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두려움만 커질 뿐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을 뺏으로써 오히려 믿음이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끊으심으로써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던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평안과 번영 속에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정화되었기 때문입니

다.

참된 믿음과 쓰임 받는 일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 56:3-4).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담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떨어져나가고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두렵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많아서 두렵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에 속해 있던 목회자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군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원을 줄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봄은 영어로 ‘Spring’이예요. 참 예쁜 말인 것 같아요. 용달샘 바위 틈새에서 풍풍 솟아나오는 물방울이 시원하고, 겨우내 긴 잠을 자던 개구리가 얼음 녹는 소리에 놀라 ‘용수철(龍鬚鐵)’처럼 푹푹푹푹 튀어 오르죠.

우리말의 ‘봄’은 매우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예요. 봄의 어원을 살펴보면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품어온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얼어붙어 소멸된 것 같은 겨울을 겪어내고 새싹을 움틔우는 경이로운 새 생명을 보며 ‘보다’의 명사형인 ‘봄’을 끌고 왔더니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의 감각과 동작을 시각화하는 경향이 우리말만큼 뚜렷한 언어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눈으로 봐요. 말아보고, 먹어보고, 들어보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생각해 보고, 일을 보고, 장을 보고, 대를 잇는 순간에는 자손을 본다요. 많은 신체장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을 굳이 고르자면 시각장애라고 해요. 보지 못하는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말일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여덟 번 등장해요(마 9:27, 12:22, 15:30, 20:30, 21:14, 막 8:22, 10:46, 요 9:1).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시각장

애인 치유 기사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치유와 조금 달라요.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치료는 오직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소 복잡하고 지저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요 9:7)고 하셨어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남달랐어요.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이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요 9:32)고 고백해요. 당시 사람들은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거지요.

왜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를 치료하실 때 눈에다 진흙을 바르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손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였던 것이지요.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 진히 진흙을 침에 이겨 선천적으

로 결립된 안구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던 장면과 정확히 일치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창 2:7).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창 3:19)이라는 저주를 받은 신세가 되고 말지요.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새롭게 탄생할 부활공동체를 향하여 숨을 내쉬는 것이예요. 흙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를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지요.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동시

에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요 12:45).

하나님을 ‘본’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봄’의 인생인 것이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연못으로 BC 700년 경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에 대비해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예요. 다른 말로는 ‘왕의 연못’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 왕의 연못에서 한 남자의 눈에서 진흙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은 이제 마음껏 세상을 담을 거예요. 그동안 듣기만 하고 상상만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이 남자는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집중하며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신(요 3:16) 사랑을 평생 노래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샘(spring)이기 때문이예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진정한 희망의 샘(spring)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윤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YOU:TURN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여러 고민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해결방법을 찾아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 2회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나' (6월 13일 방송)

MC 박지윤 아나운서 | 패널 김형준 목사, 이호선 교수, 개그맨 정범균, 배우 윤안나
CGNTV 유턴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youturn 유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youturn_cgntv